

석굴암 곳곳 균열... 안전 대책 필요

'2012 석굴암보고서' 살펴보니 56곳 결함 확인

한국불교문화의 정점인 불국사 석굴암의 균열이 상당 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며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11월 8일 "석굴암의 균열이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실제 문화재청을 통해 입수한 '2012년 석굴암 보고서'에 따르면 석굴암에 균열이 생긴 곳은 보존불과 대좌 주위의 사천왕상, 천정까지 총 56곳에 이른다.

당시 연구 조사는 △성능저하부 △변위 △압축강도 △균열거동 △진동 등 5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보고서에는 관찰 결과 이전 조사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봤다. 다만 대좌의 방향성 절리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본존불의 대좌는 방향성을 가진 절리성 균열이 발달돼 있고 박락·박락에 따른 손상과 이격이 있다"면서 "본존불과 대좌 사이에는 불균등 하중이 작용하고 있어 절리성 균열과 상관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실 천정에서는 균열, 후화 및 보수 흔적과 변색이 조사됐으며, 내부 기둥은 파손과 박리, 균열

이 발견됐다"고 기술했다.

변위, 압축강도, 균열거동, 진동 조사에서는 모두 향후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변화 추이를 살펴볼 것을 보고서는 당부하기도 했다.

석굴암의 균열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균열 자체를 살펴보면 석굴암 조성 당시까지 소급할 만큼 오래된 것이라 '진행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석굴암을 여러 차례 보수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석재를 사용하다보니 균열이 심해졌다면서 앞으로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석굴암 안전에 충분한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석굴암 균열이 진행되는 것은 오래됐다. 시기도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다양하다"며 "이제는 제대로 점검해 보존과 대좌가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너짐 방지를 우선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불상에 대해서는 "왼쪽 무릎 앞부분이 길게 금이 가 있다. 그것이 벌어지면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석굴암의 온전한



2012년 석굴암 보고서 수록된 대좌 균열 모습.

- 대좌 중심으로 절리 현상
- 불균등 하중 상관성 제기
- 문화재청 "모니터링 지속
- 정밀조사 통해 대책 강구"

보존을 위해 제2석굴암을 건립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우방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균열과 박리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면서 "현재 문화재 보수 공사는 매우 부실하다. 문화재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제2석굴암에 대해서는 "현재 석굴암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떨어질까 우려된다"며 "성보 문화재는 그 자체로 존귀하다. 현재 석굴암을 보존하는 데 국민의 원력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과 지적에 대해 문화재청도 정밀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화재청은 11월 8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석굴암에 대해서는 1996년 매년 2~3회에 걸쳐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일부 미세균열과 석재 풍화 등에 대해 과학적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존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콘크리트 등의 변형시설물과 훼손된 부분에 대해 관계전문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형을 찾아 복원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종일·노덕현 기자

청년 불자, 농활로 밀양 돕기

불시넷 등 11월 1~3일 가을 봉사활동

청년 불자들이 송전탑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밀양 할아버지, 할머니를 돕기 위해 나섰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와 결사모임 '붓다로 살자, 평화재단 청년포럼 회원 23명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밀양 가을농활을 진행했다.

밀양 상동면 고정리 고담마을회관에서 머물며 진행된 이번 가을 농활에서 참가자들은 감 따기와 고추 수확, 콩 수확, 벼단 베기 등의 농사일을 하며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또한 회관 인근의 도곡 농성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고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는 지킴이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11월1일 오후농활을 끝마친 참가자들은 밀양시내 변화가인 영남루 인근에서 밀양에 대한 각자의 바람을 적은 팻말을 들고 '걷기명상'을 진행했다. 명상에 이어 고담마을회관에서 '밀양 765kv 초고압송전탑 반대 대책위' 활동가들과 함께 대책위의 입장을 들어보고 질의응답을 하는 대화마당을 개최했다.

2일에는 도곡농성장 지킴이 활동과 북면 위양마을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3일, 오전농활과 함께 직접 주먹밥을 만들어 도곡 농성장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2박3일간의 농활일정을 모두 마쳤다. 신종일 기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와 결사모임 '붓다로 살자, 평화재단 청년포럼 회원들은 11월 1~3일 밀양 가을농활을 진행했다.

인각사와 일연 스님의 흔적 한자리에

불교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역사의 향기를...' 내년 1월까지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원학)이 인각사의 주요 발굴유물과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 내용을 공개하는 전시를 갖는다. 기획특별전 '인각사와 삼국유사? 역사의 향기를 따라 천년의 숨결을 만나다'는 11월 12일~2014년 1월 12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2008년 인각사에서 출토된 청동병향 등을 비롯해 불교문화재 총 77건 195점 (보물 5건 7점, 시도유형 3건 3점 포함) 등 인각사와 <삼국유사> 관련 유물을 한자리에 모았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인각사는 통일신라 시대 창건 이래 많은 시련을 겪어 왔다. 또한 일연 스님이 민족의 보전(寶典) <삼국유사>를 집필한 곳으로 이와 관련한 불교문화재를 한 자리에 모았다"고 전시의 취지를 전했다.

'인각사와 삼국유사'는 △인각사의 창건 △일연 스님의 주석과 인각사의 비상 △<삼국유사>의 탄생지, 인각사 △천년고찰의 쇠락과 인각사의 미래 등 네 개의 테마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특별전에는 2008년 10월 26일 발굴된 불교금속공예품이

첫 공개돼 눈길을 끈다.

불교중앙박물관 김추연 연구원은 "불교 금속공예품 10여점은 9세기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그 하나하나가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나다. 인각사 출토 불교금속공예품 중 청동병향로, 청동향합, 청동정병은 중국 하남성 낙양 신회선사 묘탑 발견 공양품과 비교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일괄 출토품으로 매우 귀중한 유물이다. 이외에도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주요 발굴유물로

청동병향 등 발굴유물 첫 공개 인각사 관련 보물 등 193점 전시

전시해 인각사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일연 스님과 관련된 유물도 눈길을 끈다. 일연 스님은 어머니를 곁에서 모시고자 인각사를 하안소로 삼아 내려왔다. 이후 스님은 인각사를 고려시대 구산선원을 주도해 간 중흥사찰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스님이 입적한 후 인각



인각사에서 출토된 불교 금속 공예품들. 불교중앙박물관은 11월 12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인각사 정보 기획 특별전을 개최한다.

사에는 '인각사 보각국존 정조탑비'가 왕명에 의해 세워지게 된다.

김 연구원은 "이 비는 민지(閔漬)가 찬한 내용을 왕희지의 글씨를 집자하여 조성했는데, 중국에서도 탁본을 요구할 만큼 유명했다. 더불어 조선시대 선비의 서법 연구를 위한 탁본의 대상으로 수난을 겪었다"며 이번 전시에서는 비의 탁본첩을 모아 과거 비의 모습을 그려보고, 현재 남아있는 보각국사의 중요성을 관람객과 공유하고자 한다"며 탁본첩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조선초기의 범어사본

을 비롯해 근대 간행본 <삼국유사>까지 시대를 거쳐 이어져 내려온 고서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삼국유사>에 담겨진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단군을 제석천으로 숭상한 이야기, 역신을 물리친 처용, 아이의 눈을 뜨게 한 천수천안관음보살, 선덕여왕과 모란꽃에 관한 이야기 등을 소재로 관련 유물을 함께 전시한다. 아울러 <삼국유사>에 언급된 당시 교찰의 흔적과 불교미술품을 찾아보고 원효·의상 스님 등 당대 고승들의 행적과 저술했던 책을 소개한다. 정혜숙 기자

천태종 복지재단 내년 예산 303억원

8일 이사회서 확정

천태종복지재단의 2014년 예산이 3백 3억 9백 6십 4만 1737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3년 1차 추경 예산 대비 23억 5225만 8951원을 감액한 금액이다. 천태종복지재단(대표이사 도정, 천태종 총무원장)은 11월 8일 서울 관문사 대회의

실에서 '2013년 제4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외에도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2013년 추경 예산안 산산하시설 운영규정 변경안 △진해금강노인전문요양원 원장 임명 건 등이 논의됐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재가연대 '올해의 재가불자상' 추천 공모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이수덕)가 '2013 올해의 재가불자상' 수상자를 추천받는다.

재가연대는 "2011, 2012년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 했지만, 올해부터는 원래 취지를 살려 불교와 사회발전을 위해 주체적이고 개척자적인 노력을 한 재가불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2013, 올해의 재가불자' 수상자는 2인을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2013년도, 올해'의 의미 있는 이슈들과의 관련성, 참여 불교정신에 비추어 본 사회적 실천성, 재가불자들의 의식과 신행의 바람직한 변화

에 미칠 영향력, 올바른 사부대중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여도 등이다.

후보자 추천은 개인이나 단체 모두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후보자 개인 이력서와 후보자 추천서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며, 재가연대 사무처에 접수하면된다. 수상자는 12월 12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 19일 오후 7시 우리 함께 화관 2층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린다. 2013 참여불교재가연대 '회원의 밤'에서 이루어진다. 수상자는 상패와 각 100만 원의 상금을 받는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초판 일주일 만에 2쇄 발행

전문학자 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의 직지에 대한 단상

직지直指, 길을 가리키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뛰어넘는 가르침, 선불교의 정수 <직지> 선불교는 더 이상 풀지 못할 미지의 세계가 아니다.

■ 이시우 지음 / 648쪽 / 29,500원 / 신국판 변형 양장

Tel. 02)732-2403~4 **민족사**

붓다에게 배우는 행복하게 사는 법

붓다의 인생 코칭

불교는 현실적이지 않다?? 붓다가 일러주는 직장인을 위한 자기계발의 지침서

비즈니스를 할 때에 감정이 얼굴에 쉽게 나타나는가? 상사와의 갈등에 괴로운가? 현대사회는 수없이 많은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기에 정확한 결단기 매순간 요구된다. 이 책은 빠른 결단을 내리는 법, 새로운 부서로 발령 받았을 때 대처하는 법 등, 흔한 출퇴근길을 겪으며, 커피와 야근이 일상화된, 고단한 현대인을 위한 붓다의 인생 코칭이다.

■ 우에니시 아키라 지음 · 유유했을 옮김 / 신국판 / 10,800원

Tel. 02)732-2403~4 **민족사**

화두 참구의 길잡이! 깨달음의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선 수행의 필독서! 드디어 5년 만에 재간되다!

원문을 번역하고 현토(懸吐), 주와 해설을 붙인

벽암록 완역판

공안집의 최고봉, 선(禪)문화의 총결산 <벽암록>, 최초의 완역본! 석지현의 명쾌한 해설로 만나.

■ 원오근 지 · 석지현 역주 해설 / 신국판 / 145,000원 (세트)

Tel. 02)732-2403~4 **민족사**

마음의 비밀 - 알기 쉬운 유식입문

유식(唯識)에서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아뢰야식이라고 한다. 마음의 표층에서 생기는 감정이나 사고는 모두 아뢰야식에 축적되어 무의식중에 표정, 몸의 상태로 나타나 외부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표층과 심층이 연결되는 비밀코드를 알면 누구든 지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책은 갖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마음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표층과 심층이 연결되는 비밀의 코드, 아뢰야식!

■ 오코야마 코이츠(横山) 지음, 김영우 옮김 / 232쪽 / 10,800원 / 4×6판

Tel. 02)732-2403~4 **민족사**